

KBS 중앙 집중형 IP-PBX 시스템 구축 및 FMC 신규 도입

KBS / 한국방송공사



Summary

KBS는 삼성 IP-PBX를 도입하여 여의도 본국과 19개 지역국을 통합하는 중앙 집중형 구내전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운영효율화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FMC를 도입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회사전화 사용, 메시징, 채팅, 파일 공유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였다.

도입배경

KBS는 여의도 본관/별관과 더불어 전국 9개 주요도시(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에 방송총국, 10개 지역(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경인)에 방송국을 운영하여 전국적인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구내통신시스템도 지역국별로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일관된 번호체계를 가지지 못하였고, 유지 보수 비용 또한 과도한 상황이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유선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외근이 잦은 기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을 꺼려 하여 외부에서도 회사전화번호로 구내 전화처럼 통화할 수 있는 FMC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bout KBS

대한민국 방송법 제4장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사. 전신은 1927.2월 세워진 경성방송국으로 1973.3월 문화공보부에서 독립해 한국방송공사로 전환하고 공영방송 기관이 되었으며, 현재 TV채널 3개, 라디오 채널 7개, 지상파 DMB 4개 채널, 데이터방송 및 인터넷 등 뉴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의도 본국과 전국에 9개 방송총국, 10개 지역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3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KBS 본사와 전국 지역국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구축 내용

KBS는 여의도 본사에 삼성전자의 IPv6, All-IP, UC 기반의 미래 지향적 IP-PBX 장비인 SCM을 설치하고, 전국 19개 지역국에 지능형 Gateway인 OfficeServ7500을 설치하고 통합하여 중앙 집중형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사내외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회사전화, 메시징, 채팅, 파일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FMC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여의도 본사 통신실에 IP-PBX, FMC 서버를 이중화 구조로 설치하여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IP-PBX와 FMC Server를 분리 구축하여 보안성을 강조하였다. 각 지역국에는 OfficeServ7500을 설치하여 이를 본사에서 중앙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Numbering과 손쉬운 유지보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FMC Client를 설치하여 회사 조직도에 등록된 직원 상호간/그룹간 메시지, 채팅을 통해 대화 및 업무 요청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유선 인터넷 전화와 스마트폰이 연동되어 유·무선 동시 착신이 가능하고, 원격 착/발신 기능으로 외근 중에도 업무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enefit

언론사의 경우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여 대형 외산 벤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M/S 1위 업체로 오랜 기간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KBS는 관공서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 받았음을 인정하여 외산 벤더 대신 삼성전자 IP-PBX를 도입 결정하였다.

- 본사와 19개 지역국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통합된 Numbering 정책 적용,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유지보수 비용 절감
- 본사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본사 개발팀의 적극적 지원 및 전국 AS 망을 통한 신속한 장애 대응 가능
- Mobile UC 도입으로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구성 요소



IPT

- SCM, FMC Server
- OfficeServ7500
- IP Phone